

무엇이 무슨가. 무엇이 기쁜가.  
세상은 항상 불리고 있고 그대들은  
어둠에 쌓여 있는데 어찌 빛을 찾지 않는가  
(玄奘·노모품 104절)

## 학생회 간부 징계조치 철회

### 학내정상화방안으로 교무위원회의통해 결정 이후 학생회측과 협의 진전 계기될 듯

학교당국이 최순호 총학생회장 9명에 대한 징계철회를 결정함으로써 학내사태 해결의 밝은 전망을 갖게되고 있다. 오늘(8일)교무위원회 회의를 통한 이 징계철회방안은 교무위원 22인의 찬성과 1인의 반대로(기권 1, 무효 1)로 가결되었으며 이로써 80일간의 학생회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풀리게 됐다. 이번 징계철회결정은 지난 3일 있었던 총장과 총학생회대표와의 면담에서 학생측이 등 록금 예치액 전액을 전입하기로 함에 따라 학교측의 긍정적 제 점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놓고 열린 지난 6일 교무위원회의에서 징계철회를 안건으로 첫 논의를 가졌으나 긍정적토입장에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교무위원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시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편 총학생회는 징계철회가 논의되기 이전인 지난 2일 도서관앞에서 5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진군식을 개최하고 학교당국에 제출하는 요구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학생회는 1차 요구서를 통해 학교당국에 3차회담을



총학생회장 학생 3백여명은 지난 2일 부당징계철회와 3차회담을 요구하며 총정실 협의능성을 진행하고 있다.

과회담을 진행하는 현실적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측은 학교측의 징계철회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강경부쟁 전 지자세에서 협의의 활성화를 통해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형태로 학원자주화투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취재부)

## 개교 90주년 기념사업기금 기부자 명단

(89년 9월 8일 현재, 기탁일자순)

행정대학원	경주·울산·포항지구 53기일동 5백만원
황인규	5백만원
김수철	2백만원
김영국	1백50만원
강경훈	1백50만원
여직원회	1백만원
△한동희(불교대학원)=1백만원 △김경호(불교대학원)=50만원 △이영식(불교대학원)=50만원 △김대건(사범대 교수)=1백만원 △김평자(불교대학원)=50만원 △김향하(불교대학원)=50만원 △신동학(이과대 교수)=1백만원 △김영정(경상대 교수)=10만원 △正心會(대표·추연학)=30만원 △김병은(행정대학원)=1백만원 △김경배(행정대학원)=1백만원 △서정호(외과대 교수)=1백만원 △박영봉(불교대학원)=50만원 △한상균(교육대학원)=10만원 △김희(교육대학원)=10만원 △김형운(교육대학원)=5만원 △이희원(경영대학원)=1백34만5천5백원 △김도경(교육대학원)=5만원 △박경주(교육대학원)=5만원 △김영국(경영대학원)=1백50만원 △김경도(경영대학원)=10만원 △박선중(경영대학원)=50만원 △황재연(경영대학원)=10만원 △이정환(경영대학원)=20만원 △김태원(경주관제과)=10만원	

7면으로 이어짐

## 교육부 12억 국고 보조 도서·기자재 구입비 명목

교육부는 93년도 사업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본교에 총 11억9천7백56만9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자로 교육부가 발송한 93년도 사업대 재정지원계획에 따르면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3억1백87만6천원, 기자재 구입비로 5억3천2백24만6천원이 책정됐으며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학과에 지원되는 산업인력양성지원금이 3억6천3백44만7천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학교당국은 오는 15일까지 교육부에 이의 사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의 검토가 끝나는 오는 10월 중순경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 사 사 사 】

△임차장 △이석중(불교대 불교2)=취재 1차장 △전현철(법정대 야간법학2)=취재 2차장 △백찬주(인문대 국문2)=취재 3차장 △김선영(상경대 회계2)=여론 매체 차장 △이재환(상경대 관경2)=사회 차장 △김태성(인문대 국문2)=문화 차장 (이상 9월1일자)

## 경주 전자계산소 행정전산망 개통

경주캠퍼스 전자계산소(소장=이계영·전자계산학)는 지난 2일 학내의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도서관 2층 전자계산소에서 행정전산망 개통식을 가졌다. 지난 8월4일 서울-경주간 온라인 데이터 철로 개통이후 학사행정 전산화의 전진화를 추진해온 전자계산소는 8월30일부터 9월 1일까지의 시험가동을 거쳐 이날 개통식을 가졌다. 행정전산망 개통과 함께 경주캠퍼스 각 행정부서에는 단말기를 설치, 업무의 전산화를 완료했으며, 신속한 행정업무처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밖에 전자계산소 내에 세

## 학생처 회사설명회 개최

학생처(처장=노완섭·식품공학)는 오는 9일 현대화계해상보원 회사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기업회사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초빙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된 기업채용요강 등이 강의될 이번 회사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현대화계해상보원=오는 9일 오후2시 동국관(M208) △

최창술교수 강연회 최창술(선학)교수는 오는 14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실사에서 열리는 선우도량 주주 강연회에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 보리수

다케시다(竹下)가 총리로 있던 89년 봄 일본 국회에서는 한 편의 동화가 낭독되어 의사당을 울음바다로 만든 일이 있다. 절망은 국회의원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지 않을 수 없도록한 이 동화의 제목은 구리표페이(栗良平)가 쓴 '우동 한그릇'

전후(戰後) 일본의 궁핍한 생활을 묘사한 이 작품의 내용은 이러했다. 일본 북해도의 한 우동집에 어느해 겨울 젊은 부인과 두 사내아이가 찾아와 우동 한그릇을 시켰다. 그들은 건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한그릇을 셋이서 나누어 먹었다.그다음 해에도 그들이 찾아왔다.우동집 주인은 그들을 위해 아예 2인 테이블을 비워놓았다. 어느해 그들은 우동 두그릇

## 우동 한그릇

을 시켰다. 그들은 우동을 나누어 먹으며 트럭운전사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얼마나 못맞춰가게 가난을 이기며 살고있는가를 얘기했다. 그러던 어느해부터 세모자는 그 우동집을 찾아오지 않았다. 주인은 그래도 그들을 기다리며 테이블을 비워 두었다. 14년이 지난 어느해 겨울 이 우동집에는 초로의 부인과 건장한 청년 두명이 찾아왔다. 우동 한그릇을 세사람이 나누어 먹던 바로 그들이었다. 그때 소년이었다던 큰 아들은 의사가 되어 있었고 동생은 은행원이 되어 있었다. 이 동화가 그로록 사람들의

## 수습기자모집 기획광고

# 그·무엇을 찾아야만 한다



3평 남짓한 신문사의 암실 귀퉁이에는 선배들이 남긴 '그 무엇을 찾아야만 한다'라는 글귀가 썩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기자들에게 생활의 의미가 되어 주곤 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정도로 사건현장을 뛰어다니며 기자들은 '무엇'을 일궈내기 위해 왕부터 거지까지 만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열심히 삶을 살며 '무엇'을 찾겠노라고. 지금 그 무엇을 찾아 지향없이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문사는 여러분과 함께 그 무엇을 찾아 뛰어다니고 싶습니다.

동대신문사



이제 그들이 나서야 한다

이른바 유곡사건과 12·12사태, 그리고 '평화의 댐' 건설과 관련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있다. 야당이 원내 소수의席位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명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때와는 달리 진일보 했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대 국회에서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청문회, 5공비리 청문회 그리고 1980년의 '언론대학살' 관련 청문회 때와는 달리 국민들의 관심사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모두들 TV수상기에 몰려있어 밤새워 중인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지켜보던 때에 비한다면 너무도 무덤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물론 속으로는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는 그렇다는 말이다.

필자도 1988년 언론청문회에서 신문부가 폭력적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탄압하였는지에 대해 증인들을 심문한 적이 있다. 당시에 국민들이 보여준 격려와 각종 제보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모두 지난 시대에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이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역사적 심판을 받기를 두려워하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라고 항변하면서 잘못을 시인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적인 극비 자료를 증거로 들이밀며 줄기말을 하느라 그만 그 자진들과는 관련없는 별개의 일이었다고 따서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하였다.

바로 지금의 국정조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의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즉, 다시말해

서 국민들은 '변화과정과' '변화 결과'를 지레 짐작하고 식상해 있는게 아닌가 한다. 이에 덧붙여 국민들이 표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빠진 증인 신분은 '두인공' 없는 연극을 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예시당초 국정조사 사안인 유곡사건과 평화의 댐 건설 문제는 몇 사람의 전직 고위관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

'담변'(과연 이런식의 글을 두고 담변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을 통해 자신들에게 분개하고 있는 사안들이 이른바 '동지행위'이며 이를 퇴임 후에 시시비비 따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근엄하게 나무랐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봉건전제군주시대의 상왕(上王)인양 처신하는 그들의 자세도 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도대체 역사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

있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구구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복권의 '금강산담' 건설을 터무니 없이 과장하여 온나라를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는 정권연장 음모를 획책했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는가. 또 국가 안위를 위한다고 청단우기를 구하면서 친문학적인 '검은 문'을 사이에 두고 마치 장난감 고르듯 했다는 의혹도 셋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두 사람의 행위가 문자 그대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동지행위'였는가 아니면 사리사욕과 권력유지를 위한 '범죄행위'였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설혹 명백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자신들의 책임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들은 스스로 나서서 이를 밝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은 회피한 채 '비밀적이지 않은 선례' 운운하며 비평가기를 고집한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상당수가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집권과정과 권력유지 과정에서 사실 지금 국정조사 대상에만 국한할 수 없을 것이다. 부정부패, 비리, 의혹 사건을 양산하였다. 그 모두에 대해서도 언젠가 진상이 밝혀져서라도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한 이후에 그 처리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자. 그 누구도 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어떤 이도 역사적 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백년 천년 '개혁'을 외쳐도 소용이 없다. 이제 그들이 역사 앞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

시시모범

이철 민주당 국회의원



역사앞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

전·노 국정조사 불응

그렇다. 이 사안들에 얽힌 각종 의혹을 속 시원히 밝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두환, 노태우 씨 뿐이다. 오직 그들 두 사람만이 실사내치림 꼬여 있는 '문제덩어리'를 풀 수 있을 따름이다.

국정 책임자는 역사에 책임자

두 사람의 전직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 씨는 최근 일련의 감사원 질의서에 대한

소개를 전혀 따지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굳이 교과서적 원론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정책집행은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반드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가장 앞세워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런 기준에 따라 임기 중이든, 퇴임후든을 가리지 않고 모든 행위를 검증받고 심판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더구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정조사 대상은 모두 국민전체의 재산과 생명이 걸려

있을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부패, 비리, 의혹 사건을 양산하였다. 그 모두에 대해서도 언젠가 진상이 밝혀져서라도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한 이후에 그 처리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자. 그 누구도 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어떤 이도 역사적 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백년 천년 '개혁'을 외쳐도 소용이 없다. 이제 그들이 역사 앞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

사설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교육계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그 개정을 공약한 사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사립학교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교수회의를 안착화하고 이 기구에서 학적제정, 학교(총)장 추천 등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키로 했다.

또한 민교협이나 해직교수협의회, 전국 국·사립 대학교수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공대위는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공청회와 연구작업을 바탕으로 개정사안을 마련해놓고 개정추진대회 개최를 검토중이다.

반면 사립학교법 제정도를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공약했던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놓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또한 본교 총장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사립대학 총학장협의회는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개정의견서를 발표했다. 사립학교법의 가장 큰 개정사항으로 지적되는 법인의 총학장 임명권, 교원임명권은 현재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즉 민주당이나 교수단체에서 대학자치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법인의 법적 권한을 축소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와중에서 이 법이 갖고 있는 모순을 다시 짚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90년 4월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자율권확보라는 미명 아래 법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고 정권에 초보적인 성격을 부여했다. 이로써 파생되는 문제는 여러가지 대학의 모순으로 존재한다. 학교운영의 재정권, 임명권,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재단은 학교를 하나의 법인 사유재산으로 취급당하게 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법의 성격에 의해 매년 총, 부총장선거를 둘러싸고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본교도 이 문제로 선거지나 재단임명 때면 진통을 겪곤 한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의해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교원은 교육자를 무관리자로 만들고 있다. 현재 재단에 의해 책임에서 탈락하거나 해임되어 교수지위를 잃어버린 해직교수가 전국에 56명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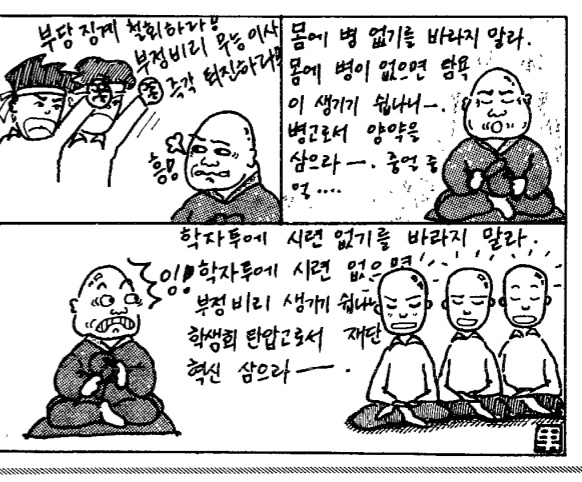
본교도 언제 어느 교수가 재단과의 불리한 판례나 여타 이유에 의해 해직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

앞서 지적한 재단의 학교 사유화라든지 재단을 고용자로 여길 수 밖에 없는 위태로운 교원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대학자치를 위해서라는 입법외도를 명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그러나 그것은 대학자치의 개념을 기만한 군부독재의 규정이다. 올바른 대학자치의 정의는 외부세력 특히 권력과 금력의 지배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더이상 획일적인 정부독점에 의해서 대학자치를 교육을 내맡길 수 없다. 문민정부는 군사정권이 박탈한 이 대학자치권을 대학 사회에 귀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현 학내 사태를 보며 또한 한국대학의 총체적 모순의 귀결로 인정되는 재단의 모순을 직시하며 진정한 대학자치의 초석을 정기국회에 기대본다.

東國漫評

김삼남



고속전철 경주캠 통과 재진단

건설공단 해결의지 미흡 조속한 합의점 모색 필요

의 범동국민 반대운동으로 확산됐다.

이와같은 대대적 반발로 고속전철 건설공단은 '학교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을 학교측과 약속하고 이후 학교와 합의를 거쳐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검토 정도의 합의에 불과하며 완전한 해결책은 지금까지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다.

공식적 반대 입장 표명

한편 건설공단은 지난 1일 학교측에 기존 비교노선에서 5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 학교앞 35킬로미터 구간의 지하노선 전동영향평가서와 노선도를 전달하고, 공식적인 '학교구간 지하화 비교노선'을 제시했다.

영남대학교 지질파악연구소(소장=김갑수)팀이 작성한 평가서의 내용은 노선과 가장 가까운 채취관에서 감지되는 진동은 539메시벨(V)로 경주캠부근의 터널구조물을 통과하는 고속전철이 하나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요에 서술한바와 같이 국내 실제경험이 없으므로 'TGV'를 비롯한 외국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했음을 인정,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에 힘들다.

이에 대해 강태호(조경학)교수는 "구체적 검증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산술적 계산에 의한 수치는 믿을 수 없다"며 "또한 새로운 자연과학관에 대한 조사·평가는 결여됐을"을 지적하고 지하노선구간의 전동영향평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승근 경주캠버스 사무처장은 △지하노선이 전차파·소음등의 장애를 해소한다지만 전동영향에 대해 정확한 피해를 알수없고 △경주노선주변 지상통과 지역의 주민 피해가 남아있으며 △경주시를 양분, 광명유적도시로서의 기동파괴가 우려됨을 이유로 건설공단의 '학교구간 지하화 비교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번 건설공단의 연구 자료는 '필요시 학교의 진동피해에 대한 별도의 저감대책공법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미에 적고 있어 현노선의 변경은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공단은 건설비 감축을 위해 지하노선으로 확정했던 대



최근 TGV선정 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실시됨으로써 경주캠 통과 문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학교의 완전한 피해방지와 경주지역보호를 위해 경주시의과와 전구간 지하화과하는 노선이 판철되도록 협의를 계속할 것이며 앞으로 평가서에 대한 조사·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건설공단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연대 의식 필요

하지만 이번 건설공단의 연구 자료는 '필요시 학교의 진동피해에 대한 별도의 저감대책공법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미에 적고 있어 현노선의 변경은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공단은 건설비 감축을 위해 지하노선으로 확정했던 대

구구한 지하노선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구간 전구간의 변경지하화 노선대책에 대한 가능성 역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설공단은 빠른 내년 후반, 늦어도 80년 작공을 목표로 내년상반기까지 경주구간 노선의 시공설계를 마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을 하반기까지 학교측과 합의를 찾지 못하면 '학교구간 지하화 비교노선' 채택은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주시·시의회는 고속전철 학교통과에 대한 일체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서 경주시의와 연대모색도 중요하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환기자)



지적재산권 보호만이 기술개발을 앞당깁니다

힘을 합치면 미래는 더욱 밝아집니다.

꿈과 미래를 향한 도전— 효성이 지켜가는 정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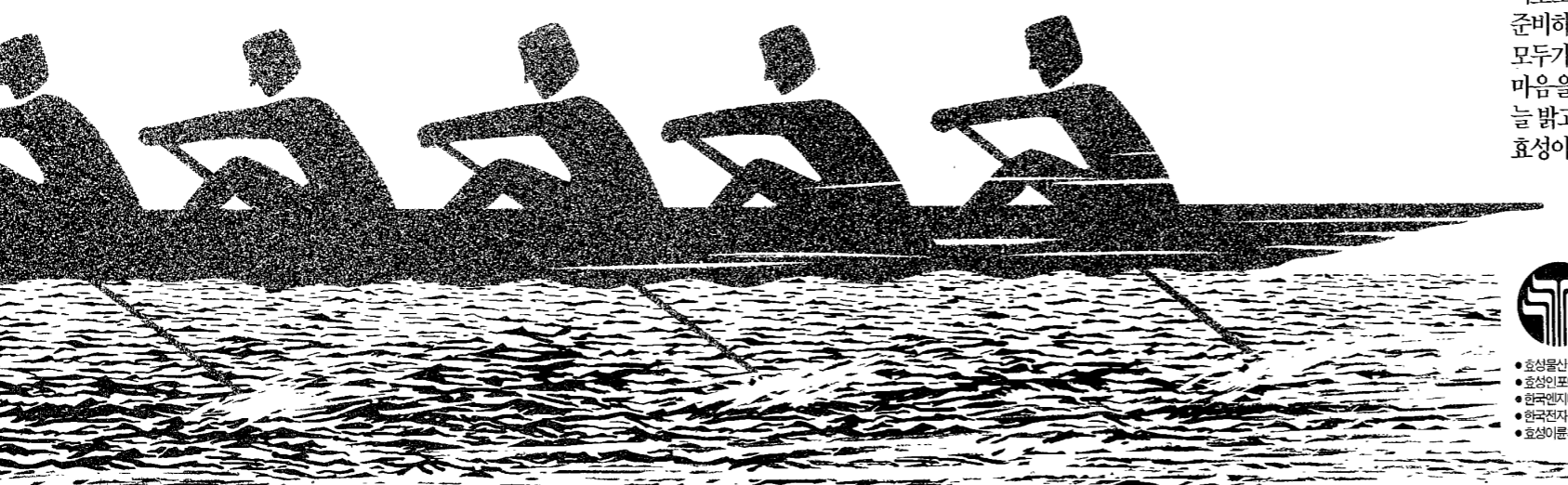
첨단기술로 풍요를, 신뢰로 화합을 퍼워는 효성— 무역, 섬유, 화학, 전자, 중공업, 타이어, 피혁, 건설 등 기초소재에서 첨단소재까지 풍요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효성의 노력은 끊임이 없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위해 마음을 합친 한방울의 땀이 번영을 약속합니다.

늘 밝고 풍요로운 미래— 효성이 함께 하겠습니다.

**효성그룹**

- 울산발전 • 동양인삼 • 동양제철 • 동양화학 • 동양건설 • 동양물산
- 동양인보(신스틸) • 동양제철(신스틸) • 효성 B&H • 효성드림(비트)
- 한국인보(비트) • 동양화학 • 효성 ABB • 효성(비트) • 한국제철
- 한국전자 • 동양제철 • 동양 • 효성(비트) • 효성(비트) • 효성(비트)
- 효성(비트) • 효성(비트) • 효성(비트) • 효성(비트)



◇ 평택군 황구지천 기지주변 환경파괴 현장고발  
매항리 사격장

# "석유 폐수 떠다 등잔불 밝힐정도..."

## 소음, 하천오염 심각...정부 구속력 발휘 못해

경기도 평택군 서남면 황구지천. 황구지천으로도 불리우는 이곳은 지평선 멀리까지 눈으로 펼쳐진 경기평야 한가운데 자리잡은 평범한 농촌마을이다. 그러나 황구지천이 흐르는 시골과 다른점은 인근에 유명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가 있다는 것과 농촌의 평화스런 마을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10년전만해도 황구지천에서 등 굽은 기형물고기가 잡히곤 했지. 그나마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40년전 이곳으로 시집왔다는 유인순(58)할머니의 기억속엔 황구지천에서 딱잡고 조개잡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황구지천은 예전의 모습을 상상할수 없는 '석유도랑'에 불과하다.

지난 57년 미군사령부가 들어선 이래 K55오산기지는 확충을 거듭. 아시아지역 최고의 전략요충지로 자리잡았다. 오산기지의 팽창·발전은 점차 기지 인근 평택군지역을 환경오염지대 기지촌으로 전락시켰다.

황구지천을 통과하는 황구지천은 오산기지에서 배출하는 각종 생활하수 및 기지내 골프장의 고독성산출물, 공업폐수, 석유찌꺼기 등의 오염물질로 심한 악취는 물론 물고기조차 살지 못하는 죽은 강이 되어 주민들조차 접근하지 않는다.

주민 홍성중(29)씨는 "기지폐수는 모두 3곳의 하수구를 통해 흘러나오며 황구지천의 물은 주민들의 농업·산업용으로 쓰인다"고 증언한다. 한편 기지내 폐수정화시설은 미군당국에서 이미 그 처리능력을 초과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황구지천의 '석유도랑·석유다리'란 지명은 예전에 주민들이 황구지

천의 석유폐수를 걸러 등잔불을 밝히는데 썼다는 이유에서 유래된 것으로 황구지천의 오염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경화처리조차 안된 기지폐수는 황구지천을 통해 아산만으로 유입 최종정미로 알려진 경기·평택미의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때문에 이곳 주민들사이에선 '차신이 기른 쌀이 지만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오갈 정도다.

또한 K55기지근방 주민들의 또 다른 고충은 소음이다.

하루 50회이상 대대적 군사작전 훈련이라도 있을때면 1백회이상의 각종 전투기, 수송기의 이착륙소음은 지난 89년 서울대 역학조사팀에 의해 평균 95데시벨, 최고 1백18데시벨의 소음치를 기록, 인간이 살수없는 환경'이라는 평가가 내려진



◇ 황구지천 주민이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배출구를 가리키고 있다.

## 新 환경문제 2.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실태

바 있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셋소등 가족의 유산 △학교 수업지장 △TV시청 및 전화통화장애 등 헤아릴수 없으며 아이들까지 자라기를 막는 실정이다.

한편 인근 화성군에 위치한 매항리 사격장의 경우 더욱 심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일명 '쿠니사격장'으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서해안 50만평의 토지와 연안방면 방해를 접유하는 미군 최대·최적의 사격연습장이다.

한국내 미7군 뿐만아니라 필리핀 클라크기지와 일본 오키나와에

꾸러지며 △폭격장 완전철수 △피해보상 마련등의 요구안을 들고 미군기지 항의방문등 주민들의 집단대응이 시작됐다.

이로장에서 만난 한 주민의 말처럼 외세에 의한 일방적 환경파괴와 생활피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는 근본적 의식의 변화와 함께 결국 '현재 사격장 위치에서 35킬로미터 떨어진 신실 대입지 외곽으로 사격장을 이전하겠다'는 협의를 미당국과 국방부측으로부터 얻어내는 성과를 가져왔다.

오는 95년까지 점진적으로 실시될 이전사업은 그러나, △기지가전에 따른 배상문제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피해등 산적한 많은 문제점을 남겨놓은 채 진행중이다.

대책 위 위원장 전만규(37)씨는 이에대해 "단지 근접사격사 피해만 해결했음"이라고 밝히며 "사격장의 완전 철수만이 앞으로 계속 생길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지난 6월7일 환경적 발표를 통해 '주한미군에 대한 환경관리강화방안'을 상정하고 이를위해 '한미합동 환경위원회'설립을 미군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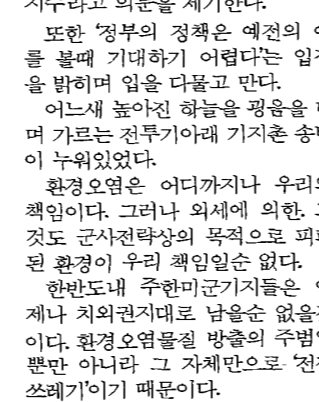
그러나 평택 시민모임 대표 김용환(38)씨는 여전히 치외법권지역으로 인정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구속력이 얼마나 작용할지는 미지수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예전의 예를 볼때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을 다물고 만다. 어느새 높아진 하늘을 평을 내며 가르는 전투기야래 기지촌 송탄이 누워있었다.

환경오염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나 외세에 의한 것도 군사전략상의 목적으로 피해된 환경이 우리 책임일수 없다.

한반도내 주한미군기지들은 언제나 치외권지대로 남을수 없을것이다. 환경오염물질 방출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전쟁쓰레기'이기 때문이다.

◇ 하루에도 수백번씩 사격연습이 이뤄지는 포격장인 매항리 사격장과 4리 남짓하다.



◇ 하루에도 수백번씩 사격연습이 이뤄지는 포격장인 매항리 사격장과 4리 남짓하다.

## 미·일 안보강화 의미

# 북한 미사일 개발...미일 공동대응 냉전 이후 미국 패권유지 위한 구상

클린턴 미 행정부는 북한의 로동 1호 미사일에 대한지역미사일 방어망구축을 9월부터 시작되는 일본과의 안보협의에서 최우선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미국은 지역미사일방어망의 공동개발을 미·일 안보관계에서 가장 긴급하고 적절한 협력과업'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은 미사일방어망 구상의 주요대상을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에 삼아, 이미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페트리오트유격미사일,중중중기경보통제기, 이지스함 방공시스템을 기초로 이종의 방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 발사일련과 관련해 미국과 회담을 갖고 '지역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알려진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관한 기술을 이전받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87년 이래 북한이 옛 소련으로부터 구입한 스커드 미사일 방어용으로 오직 하나의 페트리오트미사일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사정거리가 1천1천 로동1호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명분과 불만과 관련이 있다. 미국이 한국에 페트리오트 미사일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일 양국에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관련이 있는 미사일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미·일 양국에 페트리오트 미사일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일 양국에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관련이 있는 미사일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명분과 불만과 관련이 있다. 미국이 한국에 페트리오트 미사일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일 양국에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관련이 있는 미사일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명분과 불만과 관련이 있다. 미국이 한국에 페트리오트 미사일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일 양국에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관련이 있는 미사일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명분과 불만과 관련이 있다. 미국이 한국에 페트리오트 미사일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일 양국에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관련이 있는 미사일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지역미사일 방공망 계획은 미국이 전략방위계획(SDD)의 틀과 구조로 추진하고 있는 '제한공격에 대한 법체계적 방어계획'(GPALS, 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의 일환으로 보인다.

GPALS는 SDD의 축소판으로 우주공간에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SDD가 소련의 공격에 대한 방어에 열을 올린 것이라면 GPALS 계획은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시점에서 국지적 분쟁에 대처하는 것이다.

미국은 탈냉전시대에 국지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제할 수 없는 미사일 사용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GPALS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정악화로 동태를 찾던 SDD의 변형이고, 탈냉전시대에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구상이라는 것은 미국의 전략을 본다면 명확해지는 사실이다. 즉 소련의 위협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경찰국가로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련을 대상으로 하던 SDD계획을 국지적 강대국에 대한 GPALS계획으로 방향 전환한 것이다.

GPALS는 전술탄도미사일체계, 전략탄도미사일체계, 공중기지요격 체계로 되어있다. 전술탄도 미사일체계는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이다. 이 때 사용되는 요격무기는 개량형 페트리오트인 PAC와 고공파괴용인 THAAD미사일 등이다. 기존의 페트리오트는 목표물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지상 레이더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PAC는 목표물에 다가가기 전 마지막 수초동안은 지상레이더의 도움없이 추적장치를 활용하여 스스로 목표물을 파괴한다. THAAD미사일은 미사일근거리에서 폭발하여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페트리오트와는 달리 음속의 7배 속도로 고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여 미사일 생산업체의 차기 목표물 각광을 받고 있다. 전술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본토보다는 주로 해외미군주둔 지역이나 분쟁발생가능지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략탄도미사일 체계는 주로 미국본토를 향해 날아드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이다. 공중기지 요격체계는 비교적 낮은 궤도를 도는 위성체가 지구전역에서 500킬로미터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다.

전략탄도 미사일 체계는 고유의 지상레이더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위성에서 조기경보기능을 제공받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다. 조기예보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 뒤 거점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이뤄진다. 미국이 페트리오트 기지와 위성감시망 체계를 연결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에 필연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미사일 방어망구축을 시도하는 것은 군사산업의 활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GPALS계획 가운데 전술탄도미사일체계를 실현할 기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GPALS의 성공적인 배치는 미군의 각종 이후의 미국중심의 세계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군사적 능력의 실 것이 분명하다. 결국 미국은 전술핵무기 확산과 공격에 대해서는 핵배기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로, 그리고 미사일 확산에 대해서는 GPALS계획으로 무력화하여 냉전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셈이 된다.

미국은 냉전시대 이후에도 무한군비경쟁을 시도하여 패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명분과 불만과 관련이 있다. 미국이 한국에 페트리오트 미사일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일 양국에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관련이 있는 미사일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을 요격하여 미사일 생산업체의 차기 목표물 각광을 받고 있다. 전술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본토보다는 주로 해외미군주둔 지역이나 분쟁발생가능지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략탄도미사일 체계는 주로 미국본토를 향해 날아드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이다. 공중기지 요격체계는 비교적 낮은 궤도를 도는 위성체가 지구전역에서 500킬로미터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다.

전략탄도 미사일 체계는 고유의 지상레이더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위성에서 조기경보기능을 제공받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다. 조기예보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 뒤 거점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이뤄진다. 미국이 페트리오트 기지와 위성감시망 체계를 연결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에 필연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미사일 방어망구축을 시도하는 것은 군사산업의 활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GPALS계획 가운데 전술탄도미사일체계를 실현할 기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GPALS의 성공적인 배치는 미군의 각종 이후의 미국중심의 세계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군사적 능력의 실 것이 분명하다. 결국 미국은 전술핵무기 확산과 공격에 대해서는 핵배기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로, 그리고 미사일 확산에 대해서는 GPALS계획으로 무력화하여 냉전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셈이 된다.

미국은 냉전시대 이후에도 무한군비경쟁을 시도하여 패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명분과 불만과 관련이 있다. 미국이 한국에 페트리오트 미사일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일 양국에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관련이 있는 미사일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하루에도 수백번씩 사격연습이 이뤄지는 포격장인 매항리 사격장과 4리 남짓하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들어 미·일 양국이 공동요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통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요근래 은행권에 일어났던 한 ‘대행사건’은 많이도 쓰던 옛 속담 하나를 생각나게 한다.

지난 8월23일 새벽에 일어난 정각원 방화사건이 파문의 원인이었다.

벌써 4번째인 정각원 방화사건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학내분위기를 두가지 모습으로 극명히 양분시킨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신입 김갑주부총장은 특별담화문을 통해 ‘학교의 상징인 정각원을 방화한 것은 불교종립학교의 위상에 걸림도 전한 행위’로 규정하며 범인색출에 전력을 기울일것임을 강력히 밝혔다.

또한 경비용역업체에 의뢰를 맡겨 화재감시기를 포함한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경비인력을 보

강, 새로 만든 수위실에 연경경비토록 하는등 예전보다 강도있는 조치들을 취했다.

불교관련 동아리들도 대자보등 이같은 외적강경대응외엔 그야말로 불난집처럼 조용하다.

다만 비상경비체제에 들어간 수위아저씨들만이 매일밤을 새가며 고생하고 있을 뿐이다.

“예전에 또 똑같은 말이었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것 아니니까?”

요즘 은행쪽의 ‘미묘한 두 모습’에 대한 간단한 해답은 정각원에 예불드리고 내려오는 한 학생의 말속에서 찾을수 있었다.

현재 학교측은 경복도경에 수사를 의뢰, 범인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교도의 소행으로 정각원은 정각원 화재의 범인색출은 4차에 방화가 동일범으로 추정되기에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그 이전에 먼저 계속되고 있는 정각원 수난이 있게 된 경주캠프의 상황과 이를 지켜보며 옛 속담을 떠올릴수 밖에 없는 학생·신자들의 침묵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할 때다.

이재환 기자

김창수 (평화연구소 연구원)

## 신입사원모집

미래와 함께하는 (주)한농이  
의욕에 차 저으 인재로 차섭니다.  
책임과 의욕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미래를 개척하고 만들어 갈 인재가 필요합니다.

해당학과	모집인원	근무지	응시자격
농생명화학 식품보호화학 원예학	○명	서울, 수도권지역	대학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1964. 1. 1 이후 출생자)
경영학	○명	서울, 수도권지역	
식품공학	○명		
법학	○명		
기계공학	○명		4년제 대학 졸업 및 기계공학 (1966. 1. 1 이후 출생자)
농화학 농생명화학 식품보호화학 원예학	○명	서울 및 전국 도청소재지	

1. 모집부문  
2. 제출서류  
3. 전형방법  
4. 접수처 및 접수기간  
5. 기타

## CF교과서.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

전/략/적/사/고/로/시/작/하/는  
**CF 만들기**  
한들리 블드린 자음/박춘우 옮김  
(CREATING EFFECTIVE TV COMMERCIAL)

“CF는 골치 아픈 것이다.” 그러나 이 책 “CF 만들기”는 골고래 총서라고 하는 그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CF의 제작을 설명해 준다.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골고래 크리에이티브, 그 중에서 CF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좋은 CF가 되기 위한 좋은 나쁜 CF도 있다. 그 관점은 사설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은 CF를 카피라이터의 눈을 통해서 제시해 준다. 또한 이 책은 골고래 크리에이티브의 사교관계와 아이디어를 CF제작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필요한 실용서이며, 그 중점의 비평은 CF가 제작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에 맞춰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모든 제작비를 담당해야 하는 광고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값 7,000원

## 변리사 강좌

전·국·대·학·신·문  
광고문의는 741-1661

1. 매월초 개강
2. 과목: 특허법, 상표법, 의정법
3. 강사진: 이수용, 이인중, 이우권 등
4. 교재: 이수용, 특허법, 상표법, 의정법
5. 장소: 한국 공업 소유권 변호 연구원 서울 강남점(영등포구 역삼동 11-1) (특허법, 의정법)
6. 전화: 552-0534, 561-9087
7. 회원제 실시 (일반회원·특별회원)

주식회사 한농  
ZERI ADVERTISING INC.

# 정권유지책으로 불교 이용

## 한국불교의 과제와 전망

글쓴이 순서

1. 한국불교, 무엇이 문제인가
2. 근·현대 불교탄압사
3. 불교관계 약법
4. 중단개혁

## 불교사, 식민지 종교침략으로 점철

개화당의 좌절과 한국근대사의 파행

19세기 말 조선왕조는 양반신분제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밖으로 서양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조선왕조 500년간 지배이념이었던 유교 성리학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데 전혀 힘이 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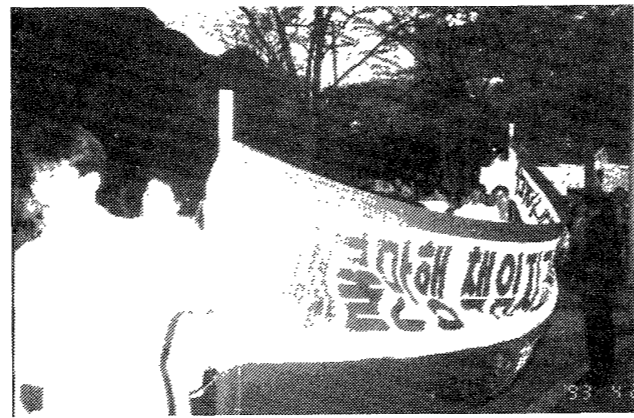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위기가 있는 곳엔 이를 극복할 새 사상과 인물이 나타나는 법이다. 조선 후기에 이러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시대의 지평을 열고자 나선 것이 개화당(開化黨)이다. 개화당은 남의 유교 성리학을 뛰어 넘어 불교인식(佛敎人識)으로 나라를 혁신하려 했던 사상정치세력이었다. 1870년대 말에 형성된 개화당은 유대적 거사(居士)·신분(紳)에 밝은 在家(在家)를 사상지도자, 김옥균 거사를 정치지도자로 하여 이종인, 탁정식, 신대모, 오경석, 서광범, 박영효 등 대명명사들의 존속한 청년과 무인, 중인, 보부상, 궁녀 등 각계각층의 신분을 뛰어 넘는 인사 수습성이 그 핵심이었다. 개화당은 조선왕조 500년간 억압받던 불교사상을 활용하여 백성들을 근대 의식으로 깨우치고, 아울러 국가 제도를 혁신하고 나라 밖의 앞선 문물을 도입하여 부국강병을 꾀했다. 개화당 인사들은 불교의 "모든 중생에 부

처가 될 성품이 있다(一切衆生皆有佛性)"는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남은 신분사회를 혁신하여 근대적 민족국가(民族國家)를 세우려 하였다. 이들은 개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교종을 융화하여 '불기부어불'을 만들고 국가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혁신적 개혁에 반발하는 사대수구파의 반동으로 개혁이 좌절하자 1884년에 정변을 일으켰으나 3일만에 좌절당하고 말았다.

비록 정변은 실패했지만, 개화당의 활동과 좌절은 한국근대사에서 실로 중대한 사건이었다. 민족사에서 최초의 근대화운동인 불교인식을 조약으로 시도하다 좌절했음은 매우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 개화운동이 좌절됨으로 이후 우리 근현대사는 일·미 제국주의가 판을 치는 수난과 시련의 역사가 되었으며, 또한 불교사는 이러한 선각자들의 지향과 인맥이 단절되어 종단의 자의식이 미약한 세력이 주도하는 혼란과 배탈(排佛)의 기나긴 역사의 터널로 들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의 불교지배책략

19세기 말 중대민 민족주의의 전향기에 개화당의 자주적인 근대화운동의 좌절은 결국 일·미 제국주의의 외세 개입을 불러 들였다. 일제는 정, 러시아와 전쟁으로, 미국과



◇ 불교에 대한 탄압과 간섭은 일·미 제국주의 지배와 역대 정권의 민족적 지배가 결합된 고도의 식민지·식민지 종교침략의 양상을 띠고 장기적으로 진행된 역사의 축적인 것이다.

는 가쓰라-테프트 밀약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 일제는 조선지배에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였다. 한편으로 헌병을 앞세운 무력침략을, 다른 한편으로 종교를 앞세운 정신적 지배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지배에 대항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는 불교였다. 일제는 불교가 조선에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통해 민족 속에 뿌리 내렸지만, 조선왕조의 억불정책으로 교단이 유명무실해져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일본 불교세력을 통해 복원시켜 이후 영향력을 확보케 한다는 책략을 썼다. 그 첫 계기가 1905년 일본 승려 사노(佐野)가 청원한 '승려입성금지해제'이다. 이러한 일제의 음모적 책략의 성공으로 일본불교는 조선불교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일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불교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1911년 '사찰령'을 공포하여 사찰의 유지선언과 재산의 처분, 사찰의 재정 등 불교지배권 일체를 총독이 관장하도록 강제하였다. 이 사찰령으로 45년 일제가 항복할 때까지 불교는 완전히 식민지 통치기구로 전락하게 된다.

일제의 불교지배에 항거한 선승(禪僧)

그러나 일제의 극악한 종교침략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항거한 불

교인들도 적지 않았다. 만해 한용운, 백용성, 송민경 스님등 주로 선승(禪僧)들은 '선학원' '불교청년회' '불교유신회' '만당'과 같은 조직을 결성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불교지주권 탈락책동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조선 불교의 정통성을 지켜 나갔다.

미국의 식민지 종교책략

1945년 민족해방은 우리 민족과 불교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외세의 개입으로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항복과정에서 조선의 의지를 묻지도 않고 소련과 연합하여 통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서구의 사상문화를 배경으로 한 미국의 부당한 조선지배는 민족불교에 또 다른 압박을 가져 왔다. 해방직후 3년간 조선을 통치한 미군정은 한국인 행정부의 55%, 행정기구 간부 50%, 입법의원 23%가 기독교인이었다(역사비평 21호, 73-130)는 통계로 보더라도 미군정의 우리 민족과 민족불교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역대 특권세력의 불교탄압

민족분단이 결정된 이승만의 남한독정권에서도 기독교인 편향은 여전했다. 초대내각 42%, 장차관 38%, 역대 국회의원 21%가 개신교인이었다. 해방 당시 개신교 교세가 총인구의 1%에 미치지 못

했음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미국과 이승만정권의 지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이로부터 반세기만에 한국인의 25%가 기독교를 믿게 되는 한국종교계의 새편과 한국인의 서구 중심의 가치관 전환이 이루어졌다). 서구의 종교와 문화의식을 신봉한 이들이 해방직후처럼 중요한 시기에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와 민족 종교를 비롯하여 국가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사찰의 주요 기만이었다. 토지개혁이었다. 종교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토지개혁은 불교의 경제적 기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1954년 비구승에 의해 시작된 승단정화운동에 대한 이승만정권 편향된 개입은 반민족, 친미정권의 민족종교 탄압의 교활한 책략이었다. 당시 승단에서 5%도 안되는 비구승들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이승만의 불교개입은 불교를 해어 나기 어려운 내분으로 몰아 갔다. 물론 승단 자체가 이러한 정권개입의 원인 제공을 했지만, 반민족 정권의 부당한 간섭에 의해 시작된 개입과 탄압 사례는, 이후 박정희정권의 일제 '사찰령'의 복사판인 '불교재산관리법'제정을 통한 불교지배와 중단분류 개입으로 이어졌으며, 80년대엔 군사정권의 '10·27법'과 노태우 정권의 '불교법'의 전통사찰 보존법'으로의 개정, 그리고 중단분류의 개입으로 계속 되어 왔다. 특히 '선사법'은 한국사회의 유독 불교에만 적용되는 종교법으로 역대 정권의 불교지배 도구였으며, 이른바 수십 년간의 문란정부는 김영삼정권 아래에서도 이 '선사법'의 혁신적 개편이라는 물론, 불교정책의 흐름이 전정권과 달랐던 것은 아직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근현대사를 간략히 살펴 보면서 반민족 정권의 민족불교에 대한 탄압과 간섭이 민족문제와 얽힌 매우 복잡한 문제임을 알았다. 불교의 문제란 단순히 불교인이 못나서 일어나는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그것은 일제의 개화기 개화당의 좌절에서부터 시작된 일·미 제국주의 지배와 역대 반민족적 특혜정권의 지배가 결합된 고도의 식민지·식민지 종교침략의 양상을 띠고 정권적으로 진행된 역사의 축적인 것이다. 바로 민족문제인 것이다.

이 식민지 종교침략의 극복이 지금 한 불교가 해결해야 할 '화두'이다.

### 박희승

(봉선사 중무연구실 연구원)

##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⑩ 예술대 오경환 학장

1970년 불교대학에 미술학과 신설, 1982년 문과대학에 연극영화학과 신설, 1987년 예술대학을 신설, 미술학과와 연극영화학과를 전편하여 지금의 예술대학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예술대학의 역사는 비록 짧지만 연극영화학과와 영상은 타대학이 부러워할 정도이며, 또한 올해 대학원에 미술학과가 신설됨으로써 더욱 발전이 기대된다.

이에 오경환(미술학)학장을 만나 예술대의 현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 학술문화관 건립후 공간확보 계획

### 학과 세분화·전문화 필요

—현재 예술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규모가 작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전공시간이 6시간밖에 안되고 실기실습을 할 공간과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예능계이니만큼 공동작업이 필요한 데 단일 건물에 없어 안타깝다.

—공간부족을 지적하셨는데 학술문화관 건립으로 미술학과 공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예술대는 인접학과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미술분야, 연극분야 모두 창조적인 작업의 학문이므로 공동작업을 해야 한다.

학술문화관 설립으로 이 두개의 과가 한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나뉘었다. 다만, 학술문화관을 짓는 동안 미술학과 학생들의 수업공간이 적정치인 연립이 있는만큼 최대한의 노력으로 동일 건물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술대가 규모가 작은 게 사실인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미술학과나 연극영화학과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학과명칭을 조정하여 세분화시켜야 한다. 또 요즘은 평면보다는 입체적인 예술의 발전으로 연극, 영화, 미술의 컴퓨터적 계통인 영상 미술학과나 산언디자인과의 신설이 필요하다.

—예술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우리교육이 일본식을 쫓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지 않는 점이 많다. 특히 예능계는 단과대학이란 틀에도 맞지 않아 개성이 필요하다. 대학이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전공을 살리는 실기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또한 시급한 것이 입시문제이다. 예술계이니만큼 개성교육과 폭넓은 표현이 필요한데 너무 정제된 상태의 표

현안으로 채정기준을 삼고 있는 것 같다. 복잡다양한 시대에서 이 시대에 맞는 예술대방향이 되기위해 무언가 색깔을 가지기를 바란다.

—학생들은 대학 졸업후 취업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진로가 있을 까요

—미술학과 같은 경우엔 작가가 많거나 미술교육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회교육의 필요성으로 산업, 상업부분에서도 미술을 필요로 하고 디자인 관련직에서도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라도 미적 감각의 소유자를 선호한다. 미술분야, 연극분야 모두 창조적인 작업의 학문이므로 공동작업을 해야 한다.

—졸업생의 비참한 사회진출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몇몇만 정직계에서 동태가 틀어 온다면 말이 있었는데 이런 예술계에서도 통한다. 연극영화학과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하고 미술학과 또한 눈에 보이는 활동하는 이들이 많다. 중앙화선 서양화선 뚜렷한 한가지를 잡고 자기의 색깔을 다져나가면 현대미술이 무겁고 철학적이지만 성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학교 작업실에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싶다. 집에 따로 작업실은 가지는는 드물 것이고 있다하더라도 그곳보다는 신배와 선이 있고 서로 토론을 하며 자극을 줄수 있는 학교가 자기정장을 도울 것이다. 특히 예술대학이기에 학생들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길 바란다.

(홍)

해야 하나 조사시일이 몇달 걸릴 것이며 그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의 방대함과 구조적 한계에 시련이 이면 학부위 문제에는 더 이상의 대외보 공방에서 벗어나 많은 학우들앞에 공개적으로 진상규

(사회부)

# 진상규명만이 학생회 신뢰 회복

## 학부위 의혹 제기 파문

지난 1일 배포된 제31호 교지에 '학부위취위의 실상을 폭로한다'는 조시형(인철 4)군등 세학생 공동명의로 글이 실리면서 학부위 진상규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지에 따르면 식당운영상 문제, 총매출액 의혹, 자판기 수익, 예산의 지출 내역, 학부위 체계와 구성상의 문제, 교육부와 학교측의 침탈설 진위, 매장의 키미션 여부에 관한 의

혹등 크게 8가지를 제기하고 있다. 조시형군등 3명은 식당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주방장을 연봉 1천십백만원에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부위는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김혜경씨가 식단 채고관리, 부식구입 등 식당운영에 대한 전반을 맡고 있다"며 현 주방장은 직영전부터 식당조리사로 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나태했던 남 자치원에 관해서도 "지난 5.6월 갑 봉조치를 취한바 있다"며 "잘못이 있다고 무조건 해고시킬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또한 교지에서 지난 3월 신입생에게 배포한 소개문건에 밝혀진 91

년도 매출규모 15억은 총매에 제출한 자료로 따져본 액수와 1억6천만 원기량 차이가 난다는 총매출액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동국공의 복사실 아저씨는 "복사실은 임대료를 따라 내지않고 복사지 한장당 25원씩을 낸다"고 하며 "91, 92년도 매출액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부위가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이 매출액부분에 대해 조직사무국장 최우석(영문 4)은 "학부위 수입만이 아니라 복사실과 안전경 총매출액을 15억에 포함시켰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입금부문에 관해 3인의 학생들은 91년 3월부터 92년 2월까지 1년동안 6명의 직원에게 지급된 1

인당 평균임금은 1백11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학부위 직영매장은 그 매장의 수입에서 해당직원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 독립채산제 형식이다. 이에 학부위는 "지배인과 부지배인 2명, 경리주임 등은 매장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면기 수입에서 임금이 지급되므로 2명씩 직원수 10명에 대한 지급금을 오해한 듯 하다"고 밝혔다.

자판기 재료비 부분과 관련 중이 점입체인 신원산업사(경기도 부천시 소재)에 따르면 "성신여대, 서강대 등에 공급하는 가격은 92년도에 해당 143원 93년도에 1397원이다"고 한다. 또한 학부위는 "성진상사(동아로취급상)와 동서식품에서 공

급하는 건음료의 원가도 자판기 재료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있다.

학부위 구성상의 문제제기에 대해 해 연 해화관 서정 관리자는 "권력선(8대 위원장)씨는 영입부장이며 낮은 임금이 상관없이 서정직영을 위해 감시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며 씩을 공급한다고 주장된 박동우(7대 위원장)씨는 현재 학부위원장으로 될 하는데 모르고 있다고 한다. 또 "총매의장 정주영(전수익 사업국장)군은 파대포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직선 간부"임을 주장해 학부위의 연계가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한편 다량한 입금이 구두유류는 아저씨는 "학부위가 매달 일정금액을 상납하라는 얘기는 틀어본 일도 없었던 적도 없다"며 아저씨의 얘기가 교지에 거론된 데에 불쾌감을 표했다.

밝혀지지 않은 예산지출내역에 관해서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공개

## 직 원 모 집

1. 모집부문 및 응모자격

모집부문	근무지	응	모	자	격	인	원																						
사 서 직	경 주	4	년	제	정	규	정	대	학	졸	업	자	로	남	자	는	병	역	또	는	면	제	자	는	각	적	약	간	명
기 술 직 (임상병리 기사)	경 주	4	년	제	정	규	정	대	학	졸	업	자	로	남	자	는	병	역	또	는	면	제	자	는	각	적	약	간	명
기 전 기 능	서 울	4	년	제	정	규	정	대	학	졸	업	자	로	남	자	는	병	역	또	는	면	제	자	는	각	적	약	간	명
목 공 경 비 노 무	서 울	4	년	제	정	규	정	대	학	졸	업	자	로	남	자	는	병	역	또	는	면	제	자	는	각	적	약	간	명
기 능 직	서 울	4	년	제	정	규	정	대	학	졸	업	자	로	남	자	는	병	역	또	는	면	제	자	는	각	적	약	간	명
기 능 직	서 울	4	년	제	정	규	정	대	학	졸	업	자	로	남	자	는	병	역	또	는	면	제	자	는	각	적	약	간	명
기 능 직	서 울	4	년	제	정	규	정	대	학	졸	업	자	로	남	자	는	병	역	또	는	면	제	자	는	각	적	약	간	명
기 능 직	서 울	4	년	제	정	규	정	대	학	졸	업	자	로	남	자	는	병	역	또	는	면	제	자	는	각	적	약	간	명

2. 전형방법

가. 사서직, 기술직 : 필기시험(영어, 논문) 면접  
나. 전기, 목공 : 면접, 실기테스트  
다. 경비, 노무 기능직: 면접

3. 제출 서류

가.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다. 사서직·기술직은 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라. 불교도 신학생(조계종산하 사찰, 본교소정양식)  
(조계종산하 사찰 주지스님 직인 및 인장 날인)  
마. 경력·보훈증명서·자격증 사본(해당자)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93.9.16(목) 17:00 한

5. 시험일시 및 장소: '93.9.18(토) 10:00 본교 서울캠퍼스 고사장

6. 지원서 교부: 서울캠퍼스 총무과 및 경주캠퍼스 총무과

7. 지원서 접수: 서울캠퍼스 총무과 ☎ 260-3065~6

\* 우송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동국대학교

## '94 학사사관 후보생 (23기, 24기) 모집

1. 모집인원: 000명

2.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자('94. 2월 졸업 예정자)로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66.10.1=74.9.30 출생자)
- 신체조건
  - 신장: 160-185CM
  - 체중: 52KG 이상
  - 시력: 0.2 이상
  - 흉위: 신장의 1/2 이상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93.0.1-10.2(학군단)
- 구비서류
  - 지원서 1부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칼라사진 (4\*5CM) 6매
  -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2매
  - 자격증 사본(취득자) 1부
  - 타군출신자는 해당 군 참모총장 추천서 1부

4. 선발: 대학성적(입학 50%, 전학년성적30%), 체력검정(20%)  
면접, 신체검사(합부판정)

5. 합격자발표: '94. 2. 26

6. 문의처: 동국대 학군단 (TEL:260-3537, 8)

## 제 112 학군 단 장

## '93 대학장학생(후반기) 모집

1. 모집인원: 000명

2. 지원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1학년 ('71.1.1.-77.1.1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93.9.1-10.30(학군단)
-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1부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복무연장 또는 징기 복무지원서 1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재정보증서, 납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천연색 사진 (4\*5CM) 3매

4. 선발절차

- 1차: 서류전형(입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 2차: 신체검사, 신원조회

5. 합격자발표: '94. 2. 8

6. 특전

- 학군후보생 지원서 『가』첨부, 선발시우대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선발)
-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지급
-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 전역시 직업 보도실시 (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7. 문의처: 동국대 학군단 (TEL:20-3537, 3538)

## 제 112 학군 단 장

# “신세대문학 제모습 못 찾았다”

## 주체상실-성의 과소비등으로 깊이 잃어

### 90년대 문학의 흐름

#### 계간지 분석

#### 잇을 수 없는 한권의 책

두보 '두시언해'

### 우연히산 고서...평생반려

이 훗날 전공의 밑거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이었다. 1964년 정일 양주동진생계 세 배를 갖더니 '두시언해'가 나왔다. 송강기사와 두시언해강독을 맡게 됐으니 미리 준비를 하게 해서 덕담이신 줄 알았다. 그래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송강은 몰라도 두시는 생부지라 어렵습니다"고 했다가 호연 꾸지람을 받았다. "이니 밤을 새워 공부할 일이지, 못하다니 그럴 다음엔 오지도 말게" 하시며 돌아오시는 바람에 분부 대로 하겠다며, 나와서 관장 태고사(지금의 조계사)로 달려가서 권선노선생을 뵈고 다급한 사연을 여주었다. "아무리 발 등에 불뿔이 떨어졌기로 소나 시경과 '초사'부터 읽어라" 하시며 나무라시면서도, "학도 사정이 딱하니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집으로 오게" 하시니 우선 안심했다. 그래서 통문관에서 송강 영인한 '두시언해'를 복사해서 독학을 받기 시작했다.

나의 오늘을 있게 한 책은 물론 '두시언해'다. 그러나 애초엔 소설에 빠졌었다. 특히 '무정'과 '꽃'에 반해 신춘문예를 겨냥하다가 마차를 놓쳐 광복과 더불어 이광수·이태준·비종화선생을 사숙했다. 그러다가 1946년 대학에 입학해서는 '고가연'으로 글을 썼는데 하연 없이 '송강기사'에 반해 이광수 선생 집합을 뒤져서 '송강기사 연구'로 졸업논문을 썼다. 그런데 양주동진생계에서 "호랑님 잡을 줄 알았더니 겨우 눈이 먼 토끼를 잡았군" 하시니 스스럼없이 감을 잃었다.

1950년 5월 졸업에 앞서 교사로 취직해서 공부는 계속 했다. 그런데 불의의 동란이 터져 갈팡질팡 바지나다가 고서점에 갔다. 김사협의 '정충강연구'를 보자 눈에 쌍심지가 들었다. 대충 넘겨봐도 나보다 앞선 공부해서 폐배에 사로잡혀 있어 캄캄했다. 일단 비상금을 주고 사서 집에 와서 훑을 밑에서 정독했다. 추월의 열두가 나지 않았다. 솟게 포기하고 전공을 바꾸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전세는 날로 불리해져 생사의 살얼음판을 피해 9·28수복되자 이내 신문에 몸담아 1·3주피에는 보도요원으로 부선에 피난, 틈틈이 권선노선생을 뵈고 '두시언해'를 사들였다. '두시언해'에 '일인적보'에 실렸었다가 53년 3월 서울에 특파되어 북개가 안된 정계전변에 출병했던 노점에서 반반한 고서를 샀는데, 그때 공로로 '두시언해'를 얻었다. 한 줄도 읽지 않았다. 이

90년대의 문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볼과 3년이 조금 지난 현재 문학계에서는 문학의 위기에 관한 논의와 90년대 초 소설에 대한 검토작업이 비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각기 다른 계간지를 통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문학) 88월호는 90년대 문학의 성격과 그 반성을 (동서문학) 89여름호에는 '모색과 모반의 과정'에서 90년대 초 소설의 진전적 성격 (실천문학) 89여름호는 '문학, 무엇이 위기인가'를 주제로 각각 게재함으로써 90년대 문학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 글들은 90년대 문학을 위기에 놓여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을 보여며 구체적으로 소설에 있어서는 새롭게 양상되는 '신세대 소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정말 문학은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인가? (실천문학 89여름)에서 김태원(문학평론가)은 '문학의 위기'란 무엇인가를 통해 문학의 위기를 규정하는 요인을 영리상대체와 컴퓨터, 표절과 외설, 미시비평, 신세대문학론 등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오락과 신성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을 지배하고 대중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는 영상매체는 이른바

위기의 담론들이 90년대의 곳곳을 들쭉날쭉하고 있다. 문학도 여기에 예외를 버려지지 않는다. 이른바 '문학의 위기'가 이전의 가치체계를 무너뜨리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변혁운동과 계를 같이해오던 진보적 문학전영도 이렇다 할 조타수없이 어려운 형세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백무산과 박노해의 시를 읽고 파악하는 것은 실로 의미가 깊다. (여기서는 89년 실천문학 가을호, 92년 실천문학 가을호에 발표된 백무산의 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90년대에서 많은 진보적인 문인들이 행하고 있는 방법은 '반성' 혹은 '회상'이다. 백무산의 경우 그것은 위기를 먹으면서 "변화는 곧 그만둠 강해지기 위한 변화(위기를 먹고 크는 나무)로 대체된다. 예전과는 달리 "변장갑을 끼어도/다시 공구를 잡아도/새봄에 신명이 붙지 않고" "다시 공구를 잡고/다시 어둠 한줄을 길어올리네"다. 그러나 "불빛속에서 어둠도 건져올려야"한다며 "나의 노동은

발랄자중후군'협상을 받고 있으며 또한 상업문화의 총아로 행세, 비민주적인 세력의 지배 도구로 동원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작은노력과 능력으로 큰 명예와 돈을 얻으려는 일부 작가들에 의해 확산됐던 92년의 표절과 외설작품들은 문학계를 도약판으로, 물가지의 세계로 몰아쓰며, 총체성과 전체성을 무시한 미시비평은 자폐적인 비평, 단편비평으로 전락해 현대의 문학적 위기를 수습하기보다 조장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세대문학은 구세대문학과의 변별성을 해명하지 못하는 단지 문학사적 고립된 문학으로 전락시킬 뿐이라는 것이 그가 현문학을 위기의 문학으로 보는 이유이다.

전체적인 문학의 위기속에서 소설이라는 한 장르의 문학 또한 90년대를 그리 평탄하게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동서문학 89여름)에 우연재(문학평론가-전양대)교수의 "이제 소설의 운명은 그 마지막 주종 소리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혼돈 속에서는 새로운 길찾기를 위해 방향하고 진통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말은 현실이 처해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90년대 소설의 새로운 모색의 지표로써 그는 80년대 소설이 보여 주었던 분명한 문학적 명제, 엄정한 전망 제시와는 달리 복잡해진 현실에 맞춰 90년대 소설의 구성 또한 복잡한 것으로 전환되는 즉, 반성하는 중간자의 의식으로 변화와 붕괴되고 있으며 현실이 구체성의 풍경과 묘사의 정정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

면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내성의 깊이 약화 혹은 주체상실의 위기' '무반성적 영웅주의' '파괴화된 단편자의 초상' '성의 과소비 현실' 문화차용의 허상'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김철(문학평론가-교원대)교수는 (실천문학 89여름)에서 신세대(저널리즘과 일부 비평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효과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소설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정일의 허망이 눈물때' 바일론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인화의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재봉의 '물레트 풀' 구효서의 '추억되는 것의 아름다움 혹은 슬픔' 이순원의 '암구정동엔 비상이 없다'등을 반증해, 반객관성, 반역사성의 작풍임을 강조한다.

80년대의 문학에서 90년대의 문학, 확실한 문학을 변화했다. 하지만 일련의 문학에서 불고 있는 90년대 문학에 대한 진단은 심사리 지나치기에 그 비중이 너무 무겁다. '우기 자본주의 시대'라고 규정지어지는 이시대에서, 과연 이런 문학의 흐름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김철교수는 우리의 문학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위기에 냉철하고도 균형잡힌 태도란 곧, 객관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인식이라는 리얼리즘적 인식의 기본과도 통하는 말일 터인데, 그렇다면 이 위기를 오히려 위대한 역사적 전환의 한 계기로 만드는 것과 리얼리즘의 새로운 확장"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김태성 기자)

문학단신

새로 나온 책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물리학과 이회소박사의 죽음』  
『국내 해물리를 연관시켜 주 리기법을 사용하여 쓴 작품(해물리) 3권 3권 5권』  
『민중주의자의 죽음』 민족민주운동과 통일운동의 선구자

『실천문학 가을호』 백무산 신작시 해부

현장체험 소박한 언어로 시화

“면장갑을 끼어도/다시 공구를 잡아도/새봄에 신명이 붙지 않네... 다시 공구를 잡고/다시 어둠 한줄을 길어올리네”

“면장갑을 끼어도/다시 공구를 잡아도/새봄에 신명이 붙지 않네... 다시 공구를 잡고/다시 어둠 한줄을 길어올리네”

“면장갑을 끼어도/다시 공구를 잡아도/새봄에 신명이 붙지 않네... 다시 공구를 잡고/다시 어둠 한줄을 길어올리네”

로써 일생을 바치운 고 장준하 선생의 글과 그의 삶, 외문의 죽음을 다룬 글들을 엮은 책 (학민사-6천원)

『천인관계론』 중국 고대 철학 전반을 유물론적 시각에 일각하여 분석을 시도한 작품(신지서원-7천원)

『지금쯤 깊은 밤인가...』 생의 외경을 일깨워주는 시인의 마음이 적힌 시집(신지서원-3천원)

『에리크트론의 초상』 에릭트론의 삶과 그의 죽음, 외문의 죽음을 다룬 글들을 엮은 책 (학민사-6천원)

『천인관계론』 중국 고대 철학 전반을 유물론적 시각에 일각하여 분석을 시도한 작품(신지서원-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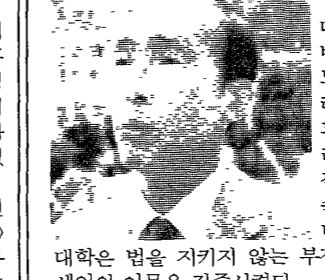
『지금쯤 깊은 밤인가...』 생의 외경을 일깨워주는 시인의 마음이 적힌 시집(신지서원-3천원)

『에리크트론의 초상』 에릭트론의 삶과 그의 죽음, 외문의 죽음을 다룬 글들을 엮은 책 (학민사-6천원)

『천인관계론』 중국 고대 철학 전반을 유물론적 시각에 일각하여 분석을 시도한 작품(신지서원-7천원)

### 보직유감

#### 권기중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근래에 와서 대학의 입시비리와 부정의 노출되면서 여러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 그리고 관계 보직교수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마치 대학을 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의 온상인양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교수의 본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연구와 교육에 있다. 그러므로 교수는 깊은 학문적 연구와 훌륭한 강의를 그 주된 임무이다. 이 같은 업무수행에는 오직 연구와 교육만이 중요할 뿐, 그 이외의 일은 본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의 운영상 교수도 학문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는 소위 보직을 맡아야 하는 또 다른 직무를 불가피한 것이다. 보직을 맡으면 일단 대학운영의 일정 한 권리와 책임이 주어진다.

이 보직의 책임은 지나치리 만치 과중하다. 충분한 우수교수를 확보해야 하고 부족함이 없는 도서관을 마련해야 한다. 만족할 만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최선의

실습기자재를 구비해야 한다. 학생들의 번학을 위하여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고 학원에게는 높은 보수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잘할 수 있어야 유능한 총장이 되며 능력있는 보직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학생들이 대학 당국과 마찰을 빚는 일도 이같은 사항에 대한 만족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학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보직자도 이러한 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법인이 무한정한 투자를 할 수도 없으며, 또 그러한 여건도 되지 못한 한국의 모든 학교법인이 당연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보직을 하는 것도 아니며, 무리하게 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외경에서 대학운영의 책임을 맡은 보직자들은 부정입학이라는 편법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가장 정정해야 할 대학이 부정을 통해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이다. 그러나 부정을 통해서라도 학교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에 있어서 보직교수는 최후의 양자? 정부는 정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비판의 소리가 높다. 과연 보직교수가 설지라는 것인가. 이제 대학은 변해야 한다.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성 경력남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하여 보직교수도 정당한 교수가 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사회도 부정의 집단이라는 누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로써 일생을 바치운 고 장준하 선생의 글과 그의 삶, 외문의 죽음을 다룬 글들을 엮은 책 (학민사-6천원)

『천인관계론』 중국 고대 철학 전반을 유물론적 시각에 일각하여 분석을 시도한 작품(신지서원-7천원)

『지금쯤 깊은 밤인가...』 생의 외경을 일깨워주는 시인의 마음이 적힌 시집(신지서원-3천원)

『에리크트론의 초상』 에릭트론의 삶과 그의 죽음, 외문의 죽음을 다룬 글들을 엮은 책 (학민사-6천원)

우리의 것을 지켜가는 젊음이 있습니다. ②



“면장갑을 끼어도/다시 공구를 잡아도/새봄에 신명이 붙지 않네... 다시 공구를 잡고/다시 어둠 한줄을 길어올리네”

“면장갑을 끼어도/다시 공구를 잡아도/새봄에 신명이 붙지 않네... 다시 공구를 잡고/다시 어둠 한줄을 길어올리네”

“면장갑을 끼어도/다시 공구를 잡아도/새봄에 신명이 붙지 않네... 다시 공구를 잡고/다시 어둠 한줄을 길어올리네”

“면장갑을 끼어도/다시 공구를 잡아도/새봄에 신명이 붙지 않네... 다시 공구를 잡고/다시 어둠 한줄을 길어올리네”

밝은미래를 열어가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은 땀 흘려 우리의 공지를 찾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마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음악의 대중화 흐름

## 전통음악의 보편화·대중화현상

요즘을 만나면 분분하다 부쩍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낀다. 노소없이 영화 서편제가 화제가 되고 누구누구도 서편제를 편곡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소리하는 사람으로서 반갑기 짝이 없고 한편으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사실 얼마전까지도 판소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노래였다. 원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제 때는 물론이고 해방 뒤 얼마까지도 판소리는 결코 요즘의 대중음악에 못지 않게 대중들의 인기를 누려왔다고 한다. 이것은 판소리가 우리의 예술이고 우리의 심성을 담기게 가장 적합한 그릇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와 혼란기를 거치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부분별하게 왜곡과 왜곡을 받아들이고 우리음악은 왜곡되고 우리의 정서 또한 뒤떨어져 본래의 색채를 잃어버렸다.

내 생각으로는 요즘의 서편제에 대한 관심은 어쩌다든 영상이든 큰 몫을 했겠지만 이 영화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오던 노래를 끌어내었기 때문으로 본다. 판소리를 빼놓고 영화 서편제를 이야기할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판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든다. 따라서 서편제는 단순한 걸작은 영화의 성공요인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음악이 제자리를 찾을 시점에 이르러 우리의 심금을 정확하게 울렸기 때문으로 풀이해 보겠다.

판소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예술이지만, 그 속에는 매우 다채로운 장단과 변화무쌍한 가락 그리고 인생을 꿰뚫어 보는 사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판소리는 어느 한 사람이 지은 노래가 아니라 한 시대를 웃고 울리던 무수한 대명정 선생님의 소리가 쌓이고 보태져서 오늘날

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판소리는 명창의 소리가 아니라 민족의 노래라고 하는 편이 더욱 옳다고 믿는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수천 수만 번을 되풀이 불려도 그때마다 새롭게 더욱 어려워짐을 느끼는 지도 모르겠다. 이 풍부한 소리를 연극으로 짜면 창극이 되고, 신석 그림을 입히면 영화 서편제가 된다.

요새 서태지라는 젊은이의 노래를 들어보면 말로 주어 심기가 노래를 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판소리의 아니리와 창을 연상시키고 그 장단도 자진율이와 닮았다. 아쉬운 것은 외래 문화를 모방하기 보다는 우리의 옛것을 익혀 참신한 것을 만들어 내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싶다. 전통 음악을 가요와 접목시키든가 훌륭한 음악

# 서편제... 판소리·영상 담긴 음악영화 보급차원 넘어 예술로 승화할 때

영화화 만들어내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이 전통음악의 보편화에 생각깊은 젊은이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드린다.

그러나 아무리 대중화가 진실한 속제라 해도 판소리가 예술이상이 예술로서의 승화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제 때 창작된 판소리 열사(烈士)라는 것이 있는데, 나도 그중 한창극을 배워본 적이 있다. 그때 느낀 것은 소리가 너무 어우러져 짜여져 있고 또 제 자리에 소리가 얹혀져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출향지에서 변역하고 출향을 협박할 때는 변역도 나름대로 의논이 분명하고, 출향 또는 절제할 논리적으로 맞섬으로 하여서 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세상 일이 그리 단순한 것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누구를 일방적으로



전통음악을 가요와 접목시키든가 훌륭한 영화음악을 만드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몰기만 하면 유지해지기 쉽다. 일제시대에서 열사가를 잘 때 무척 열정이 높았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훌륭한 표현한다고 예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은 인간을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려내서 더욱 깊은 맛이 있다. 이 등박문을 단순하게 악연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이등박문의 논리와 대중의 논리를 맞붙임으로써 그 시대의 상황이 그려낸 것만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더욱 그 시대의 아픔을 절실하게

다. 그러나 내가 받은 대답은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술 때문이었다. 억압을 깨고 가도 예술이 없는 민족은 결코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자기네들의 예술을 흉내내고 모방한다고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 음악도 마땅히 세계의 음악과 만나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주대만이 받아들여거나 어울릴까 알아야 한다. 한다면 가진 것조차 팔아먹기 십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자생 인물의 지혜가 빛을 발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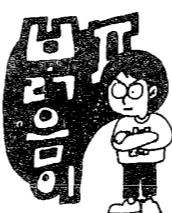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요즘 우리 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하는 말이 판소리를 지망하겠다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은 우리 판소리계에는 남과 명창의 수가 적어 어려움이 간다. 판소리가 너무 여성화되어 간다는 각계의 우려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조상 생기기 필연적으로 우리음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개혁할 분야가 넓은만큼 발달도 클 것이다.

영화 서편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는 아직 미진하게 느끼는 구석이 많다. 소리꾼의 삶이나 수업과정도 큰 감명을 줄 수 있었지만, 그것만은 판소리의 전부 아니다. 고단한 삶이 판소리가 아니라 피나는 수련의 결과 얻어진 예술이 곧 판소리인 것이다. 그들의 삶에 호기심을 갖는 단계에서 먼저 판소리 예술 자체로 눈길을 돌려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하여 더욱 판소리와 영상이 밀착된 훌륭한 음악영화를 만들어 내는 것도 이 시대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도 모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일거리가 될 것이다. 예술에 큰 뜻을 둔 젊은 이들이 야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을 그려 본다.

### 안숙선

(극악의 이해 강사)



최경인 (27)

### 영화의 패러독스

제프 머피 감독 레베카의 약점

# 미국내 치부... 약소 민족 탓 지배이데올로기 담은 오락영화 백인 심리묘사한 서스펜스 드릴러

인간은 학식이 높진 않긴, 교육 정도가 많진 않긴, 부를 축적하게 되면 중산층 소시민의 속성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그 특성중 하나가 자신의 부를 분배하고자 하는 희생정신이 부족하며, 스스로의 치부를 은폐하고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출신의 제프 머피 감독이 만든 베베카의 약점 *Bebe's Got to Have It*은 바로 그러한 미국 백인 중산층의 비열한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헐리우드 영화의 오락 장르에 당대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고수한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 백인 중산층은 자신들의 부와 기득권을 위협하는 다른 계층, 인종, 사회불순세력을 분쇄하고 승리함으로써 호환되는 입장이 된다.

멕시코에다 공장을 차려 사업을 확장하려는 미국인 부부가 멕시코 경찰을 차로 치어 죽게 만든다. 순간적으로 그들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도주함으로써 사실을 은폐하기로 한다. 그러나 미국의 집으로 그들을 찾아온 멕시코인 복직자가 끊임없는 협박과 공갈로 그들을 괴롭힌다.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은 미국인 시각에서 그려진 멕시코인 약당의

전형을 보게 된다. 약탈한 근심, 무지, 기괴한 탐욕스런 성격, 폭력, 범죄자, 마약거래 등등 모든 악의 온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백인 중산층 부부는 너무나 인간적이다. 비록 한 순간 중대한 실수를 범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사고였고, 살기 위해 도주한 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실득한다. 그들은 형무소에 가고 인성이 파멸되는 방법보다도 자다가 감쪽감쪽 놀라는 악몽에 시달리는 등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죄의 값이 보상된다고 관객에게 동정을 호소한다.

이때 비교되는 인물로 멕시코의 악당의 이미지가 앞에 등장하여 그들 미국 백인 중산층의 도덕적 불합함을 뒤덮어 주고 상대적으로 더 큰 악의 존재로 부상하여 영화를 이끌어나간다.

관객은 영화를 보면서 맨처음에 제시된 중산층 부부의 위선과 갈등을 잘 찾아내어 버리게 된다. 대신 멕시코 악당의 행태와 악적 성향에 주목하게 되며, 그의 위협으로 공포에 떠는 미국인 부부를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서스펜스 드릴러 영화의 메카니

즘은 오락적으로 완벽한 구조, 즉 식이 이분법의 갈등의 연속을 그리게 되고, 영화의 주제의식은 백인 중산층 내부의 허위와 모순에 대한 갈등에서 문득 외적인 악당의 대결 양상으로 뒤바뀌어 버린다.

영화의 주제의식을 해석하는 단서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멕시코인보다는 미국인을 옹호하고, 그것은 발전하여 백인 중산층의 모든 위협과 공포, 자기 모순은 내부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외부의 불순세력에 의한 공격 때문이라는 결론을 지향하게 된다.

우선 이 영화를 통해 완벽한 서스펜스 드릴러의 재미를 만끽하는 즐거움을 맛보지만, 미국 중산층 내부의 양심과 도덕적 불결함을 탐미적 정신해주는 명쾌한 주제의식이 실종되어 있음을 느낀다. 대신 불쾌한 멕시코 악당의 이미지 만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면서 극장문을 나서게 된다. 미국 영화는 언제까지 미국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수치심의 결과를 제3국 약소국 민족의 탓으로만 돌리려 하는가.

정재형

(연극영화과 교수·영화평론가)

# '희망의 노래 꽃다지' 가을 정기공연

'희망의 노래 꽃다지'는 오는 11월과 12월의 가을 정기공연 '동지'를 발표한다.

민중이 주인으로 살수 있는 사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건설을 위해 노래로써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이들은 '희망의 노래'를 위한 '희망의 노래'를 발표한다. '희망의 노래'는 '희망의 노래'를 위한 '희망의 노래'를 발표한다.

대학교 재학생에 노래에 있어 갖나 사회생활을 하던중 건강을 잃은 악로 노동자를 만나고 새로운 민주노조정착을 위해 모였다는 '꽃다지'는 자신들이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노동법 개정, 지주적 단결권 확보, 민주노조의 전국적 조직화등의 내용으로 대외노동자 문화예술단 체험의 대륙인 박인배씨가 중언출을 하는 이번 공연은 많이 애장

# 콘서트형식 '동지' 발표

제4부는 '노동미술창작단에서 제작한 '이것이'가 있는 그림이라는 그림2편을 선보이며 동지의 소중함을 그릴 특강도 발표한다.

제5부는 '악연의 정복'을 넘고 넘어라는 제목으로 노동법개정의 내용을 '극단 현상'의 박민호, 정성호씨가 민담으로 풀고 부활기요용으로 민주노조정착의 결의를 모

아낸다. '단결투쟁'가 마무리된 제6부는 '단결투쟁'의 큰 결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노동법개정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결의를 다진다.

이러한 내용으로 펼쳐질 이번 공연의 음악연습을 맡은 조민하씨는 '진지한 결의와 부드러운 음악이 조화되는 지리가 될 것'이라며

"노래만큼 꽃다지와 희망의 노래 꽃다지를 같은 단제로 착각하시는 분에게 확실한 구분을 지어줄 자신이 있다"며 미소를 보였다. (理)

**희망의 노래**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을 당시 마술이나 철학의 범주로부터 분리, 의학체계를 정비했다. 히포크라테스가 지금까지 의사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비단 이러한 그의 의학을 학문체계로 세운 업적뿐만 아니라,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들의 도덕성을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의학의 토대를 마련한 허준은 1600년의 연구 끝에 '동의보감'을 저술했다. 본래 양반이 아니었던 그에 대한 음해의 일화는 수없이 많다. 1608년 선조가 죽자 어의였던 허준은 치료 소홀히 했다가 하여 파직당했다. 그러나 그는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생명을 위한 의정실로 이

후 연구에 몰두 지금도 한의학 연구의 시작이 되는 동의보감을 후세에 남겼다. ▲의사나 약사들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그들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히포크라테스나 허준이 보여준 도덕(道徳)을 기본 자세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들의 '전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은 오는 9월부터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결코 싸우겠다는 태세다. ▲일마전부터 특제 한약장을 만드는 경성시장내의 공장에 불꽃 피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보사부의 약사법개정법 절충안의 1개월이상 한약을 취급해온 약국의 기록권을 인정한다'라는 조항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둘러 한약장을 들여놓는 약사들은 새것보다 비용을 더 내고라도 중고한약장을 사려고 열광이라는 소문도 돌린다. 한심한 노릇이다.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다면 히포크라테스나 허준의 생명을 위한 의정실로 가져와야 할 수가 없다.

### 사라진 인술

대한 의정실과 그런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의술을 인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최근 보사부의 '어중간한' 약사법 개정 절충안을 놓고 또다시 명분싸움이 터졌다. 언론들은 이를 놓고 '말없는 말그릇싸움'이라고 비꼬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 럭키금성의 실제변혁

#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법

경영이념의 실천을 위해 약속이행을 스스로 점검하고 행동규범을 정해 지켜나간다.



# "치질의 금연비결"

**치질의 금연비결**  
치질은 흡연으로 알려진 전(前) 영국 수상 치질에게는 시기에 알맞게 흡연이 많다. 한편 치질이 주위 사람에게 금연을 선언했다. 모두가 허투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장담했지만 예상외로 그는 완전히 끊고 말았다. 그 뒤 치질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 "다시 피우고 싶을 때마다, 사람들이 나의 약속을 생각했다. 이 치질이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약속한다.**  
나는 그동안 사회와 고백, 그리고 우리 시골들에게 내가 흡연하여 자살정신을 살리고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거듭 약속을 했다. 물론 이 약속들은 치질의 경우처럼 나의 의지가 어떤 유혹이나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엄격히 위한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럭키금성의 약을 생각할 때 이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절박한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다행히 이러한 약속들은 자칫 흔들릴까봐라도 모든 나의 의지를 항상 새롭고 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약속이행의 점검법**  
나는 매일이나 일주일 단위로 점검 약속의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약속이행 점검법'을 만들어 실천하기로 했다. 그 결과 실제 실천한 것만으로도 비전 실현을 위하여 평가하여 사람들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인데, 이 평가 항목의 1순위는 바로 회상인 나 자신의 현실의지, 실천수행의 실천도, 일관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로 이 평가내용은 물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진다.  
**경영이념 실천을 위한 행동규범**  
아무튼 지난 12월, 비전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3년째를 맞는 럭키금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 추진과 조직 활성화 측면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지난 '90년 2월에 발표한 경영이념을 어떻게 하면 사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행동규범을 제정해서 이를 통해 경영이념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비밀적인 행동규범의 조건**  
그런데 행동규범이란 고객이 기대하고 있는 바람직한 방향에 무관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모든 항목을 다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을 선택하여 여기에 개진 노력할 권유사항이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정단회의에서 다섯 가지의 그룹 중 행동규범을 제정,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첫째가 '고객이 원하는 것을 키워야 하고, 심정으로 응답하자', 둘째 '도전없이 성공할 수 없으니 두려워 말고 도전하자', 셋째 '인 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넷째 '정확한 지주 하자. 정진이 신바람나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원조는 내가 먼저, 성과는 그에게 먼저 주자'였다. 이어 각 회사의 부서와 개인에 이르기까지 특강을 걸쳐 '회사 중 행동규범' '부서 행동규범' '개인 행동규범'을 만들어 실천하기로 했다. 그 결과 실제 실천한 것만으로도 비전 실현을 위하여 평가하여 사람들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인데, 이 평가 항목의 1순위는 바로 회상인 나 자신의 현실의지, 실천수행의 실천도, 일관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로 이 평가내용은 물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진다.  
—구자경회장 저(오직 이 결박에 없다) 중에서

